

# 圓佛敎의 家庭倫理와 兒童敎育에 關한 研究

## Family Ethics and Child Rearing Reflected in the Thought of Wonbuddhism

宋 洵\*  
Song, Sun  
李 貞 德\*\*  
Lee, Jung Du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review family ethics and child rearing reflected in WonBuddism and to suggest hypothetical model of family ethics and child rearing appropriate to modern society. WonBuddist family ethics has its roots in the concept of "Grace" specifically, the essence of all relationships in the world as characterized by "Grace". WonBuddist family ethics based on this world view emphasizes mutual support, harmony and service for the public.

The purpose of WonBuddist child rearing is to bring up children who recognize the world order mentioned above while, at the same time, developing the capacity to support oneself, ultimately resulting in individuals who are balanced both morally and practically.

A WonBuddist model of family ethics and child rearing appropriate to modern society includes: (1) the concept of "Grace as a principle" for the restoration of essential humanity, (2) the principle of "mutual support" and "essential humanity" for the restoration of the feeling of family community (i.e., the cohesion of the family), and (3) the moral principle, "capacity for self support and public service" as a way of moderating the family oriented value system.

### I. 서 론

모든 聖人의 법이 가정을 인간실현의 구체적

장으로 보고 가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원불교 (1916년 少太山이 일원상진리를 대각하므로써 창교된 종교이다.) 경전에서는 「세전」 가정편

---

\*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을 따로 두어 가정과 관련한 구체적 윤리규범 등을 언급하고 있다. 圓佛敎의 가정윤리는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一圓相眞理와 四恩四要, 三學思想에 잘 내재되어 있고 윤리의 구체적 실현의 측면에서는 「大宗經」人道品과 「世典」의 家庭, 「正典」 修行編 13장 最初法語의 齊家の 要法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원불교의 대표적 경서인 『원불교전서』의 「정전」(少太山이 원불교 교리의 강령을 밝힌 元經, 1940) 「대종경」(少太山의 일대 언행을 수록한 경전, 1940) 「정산종사법어집」(鼎山의 친저인 세전과 그의 법설을 수록한 교서, 1952)등을 中心으로 圓佛敎의 가정윤리와 아동교육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특수한 종교사상을 기본으로한 접근이지만 그 안에 함장하고 있는 원리들을 일반화 시켜 현대가정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보려 한다.

## II. 본 론

### 1. 圓佛敎의 家庭觀

圓佛敎의 가정관이라함은 圓佛敎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보고 가족구성원, 가정의 기능, 가족원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少太山 (1891-1943 본명은 朴重彬이며 원불교의 창시자)은 「한 가정은 한나라를 축소하여 놓은 것이요 한 나라는 여러 가정들을 모아놓은 것이니, 한 가정은 곧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나니라.」(「대종경」 인도품 42장)하여 圓佛敎에서는 가정을 사회구성의 최소단위로서 즉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로 보았다. 「가정은 인간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부를 비롯하여 父母 자녀와 형제 친척의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되는 바

그 모든 관계가 각각 그에 당한 도를 잘 행하여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될 것이니라.」(「세전」 가정편) 하여 가정은 인간생활의 비릇이며 人道실천의 근원지로 보았다. 가정의 비릇은 부부이며 그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자녀 형제 친척의 관계로 확산 되어 나가는 생활공동체로 보았다.

少太山은 가족을 각기 佛性을 지닌 (處處佛像) 當處佛供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종사 봉래 정사에 계실 때에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子婦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하므로 實相寺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 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산 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드려 봄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드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 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實地佛供이니라.”(「대종경」 교의품 15장)하여 少太山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산부처로 보아 實地佛共을 드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少太山은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는 법을 제시

하고 있는데 「첫째 온 집안이 같이 신앙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늘 새로운 정신으로 새 생활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신앙의 도), 둘째 호주가 집안 다스릴만한 덕위와 지혜와 실행을 갖추는 것이며, 셋째 호주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집안 식구들을 가르치되 자신이 먼저 많이 배우고 먼저 경험하여 집안의 거울이 될 것이며(술성의 도), 넷째 온 식구가 놀고 먹지 아니하며 나날이 수지를 맞추고 예산을 세워서 약간이라도 저축되게 할 것이며(근검저축의 도), 다섯째는 직업을 가지되 살생하는 직업이나 남의 정신 마취시키는 직업을 가지지 말며, 권리를 남용하여 남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여 가슴아프게 하지 말 것이며(자비의 도), 여섯째 부부 사이에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하면서 서로 부유한 가정과 부유한 국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 쓸 것이며(자립의 도), 일곱째 국가·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특히 자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관과 교화. 교육의 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협력할 것이며(공익의 도), 여덟째 자녀에게 과학과 도학을 아울러 가르치며 교육을 받은 후에는 상당한 기간을 국가나 사회나 교단에 봉사하게 할 것이며(교육의 도), 아홉째 자녀에게 재산을 전해줄 때에는 그 생활 토대를 세워 주는 정도에 그치고 국가나 사회나 교단의 공익 기관에 회사할 것이며(공익의 도), 열번째는 복잡한 인간 세상을 살아 가는데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하여 매월 몇 차례나 매년 몇 차례씩 적당한 휴양으로 새 힘을 기를 것이니라(휴양의 도)」(「대종경」인도품 43장) 하였다.

또한 少太山은 가정 다스리는 요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실업과 의 식 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2.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술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3. 家眷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4.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師友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 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5.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정전」, 최초법어)하였다.

이를 『世典』家庭篇과 『太宗經』人道品の 「模範家庭 이루는 法」과 『正典』의 「齊家の 要法」 등과 관련하여 圓佛敎의 家庭觀을 가정의 기능적 측면에서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가정은 부부 父母 자녀 형제 친척의 모든 관계가 각각 그에 당한 도를 잘 행하도록 하였으므로 ‘人道實踐場’이고 둘째, 늘 새로운 정신으로 새 생활을 전개하며, 호주의 역할을 중요시 하되 온 식구가 놀고 먹지 아니하며, 부부간에도 물질생활을 자립적으로 하여 자력 있는 생활을 권장하였으므로 ‘生活의 開拓場’이고 셋째, 「호주가 집안 식구들을 가르치기로 위주 하되…」(『정전』제가의 요법), 「자녀에게 과학과 도학을 아울러 가르치게…」(『세전』 교육편)하였으므로 ‘子女敎育場’이며 넷째, 「자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관과 교화·교육의 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협력할 것이며, 자녀가 교육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을 국가나 사회나 교단에 봉사하게 할 것이며, 자녀에게 재산을 전해줄 때에도 국가나 사회나 교단의 공익기관에 회사할 것」(『세전』가정편)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公益의 터전’이다.

## 2. 원불교가족윤리

### 1) 圓佛敎 家族倫理의 原理

#### (1) 報恩相生의 原理

鼎山(1900-1962년생존, 본명은 宋奎이며 소태산의 열반후 최초의 종법사)은 「家庭은 인간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부를 비롯하여 父母자녀, 형제 친척의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되는 바 그 모든 관계가 각각 그 道를 잘 행하여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될 것」(「세전」가정편) 이라고 하며 「...무슨 방법으로든지 오직 報恩思想을 보급시키면 인류정도가 그 가운데서 자연히 건널 줄로 믿노라.」(「법어」 예도편 7장)하여 가정에서 인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은의 실현이 앞서 이뤄져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圓佛敎의 가족윤리는 佛敎의 보편적인 인연의식과 儒敎적인 가족주의 의식이 독특하게 결합된 緣의식을 기초로한 가족간 相生的인 “살림”(生)의 윤리를 지향한다. 즉 一圓相진리의 표현인 四恩이 각기 생존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족은 그 생성의 원리에서부터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므로 圓佛敎 가족윤리는 四恩의 相生的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四恩의 은혜에 피은된 내역이 大施主恩·大慈悲恩·大協同恩·大保護恩(신도형, 1981)이며 각기 被恩된 내역을 보아 보은하는 것이 윤리적 태도라 볼 때 圓佛敎 가족윤리의 제1의 원리는 報恩相生的 原理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욕구가 다양하고 가족은 구성원의 발달 주거나 가족생활주기가 변화하는 역동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각 주기마다 가족원의 욕구나 요구는 마주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욕구나 요구의 대립은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少太山은 가족은 직접 죄주고 복줄수 있는 당처불이라고 보았으며, 돌고도는 인과의 이치가 적용되는 관계이므로 상생의 연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불공의 자세로 대하며, 은혜의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는 報恩의 原理로 해결하도록 제시해 놓은 것이

다.

이러한 원리구조는 사은의 윤리구조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사은과 인간과의 관계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이다. 특히 父母恩에서 報恩相生的 윤리성은 더욱 구체화된다. 부모의 생육적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심신의 안락, 육신의 봉양, 열반후에 영상과 역사를 봉안하는 일이며,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밟는 일을 중요시하고 있다. 더욱 나아가 무자력자보호등의 대자대비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원불교 부모보은의 특징은 첫째 父母와 자녀의 윤리에서 현생적 관계에서의 윤리 뿐만 아니라 三生의 부모에까지 보은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둘째 자기 父母뿐 아니라 타父母일지라도 무자력자는 보호하도록 하여 그 가족윤리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少太山은 『正典』父母 報恩의 條目에서 인생의 요도인 四恩四要와 공부의 요도인 三學八操를 빠짐없이 밟는 것이 부모보은으로 보고 있는 바 부모보은은 개인의 기본적인 윤리성 형성의 바탕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圓佛敎의 報恩相生的 원리의 특징은 인간과 인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만물의 관계에까지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정진」사은 동포은)

#### (2) 一致調和의 原理

가족윤리의 두번째 원리는 一致調和의 원리이다. 圓佛敎 윤리의 특징은 一圓相과 나와의 은적 관계성 속에서 파악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一圓相진리 안에서 인간의 본성은 男女·上下·老幼를 불문하고 같다는 것이다. 즉 一圓相 진리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인격을 소유하나 본성적인 평등한 인격이 현실적 만남 속에서 男女·上下·老幼로 구분되니 각기 그 당한 입장과 처지에서 道理를 다하는 것이 각자의 德을 나눌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一致調和의 원

리는 一圓相 안에서 본성적 인격의 평등성으로서의 一致와 현실적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처지와 입장이 다름에 따라 나타나는 서로 다른 행동원리들 간의 調和를 말한다.

圓佛敎敎理에 나타난 調和의 원리는 少太山이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動과 靜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대종경」 서품 8장)라고 표현한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調和는 한편에 편착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하나로 상통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少太山은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 연구 취사의 一圓化와 또는 靈肉雙全, 理事並行 등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나니…」(「대종경」 교의품 1장)라고 하여 인격의 완성은 일면만 강조할 때 나타나는 편착과 불편부당을 지양하고, 三大力을 얻기 위하여 정신과 육신, 일과 이치의 양면을 조화 있게 발전시킬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즉 圓佛敎의 조화개념은 道學科學並進, 靈肉雙全, 理事並行, 動靜一如 등의 標語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영과육 일과이치 동할때나 정할때나 치우침이 없이 삼학을 병행하여 원만하고 지극한 행을 행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또한 二學修行을 통한 일심과 알음알이 실행의 힘을 갖춰 윤리적 실천의 주체와 지혜와 결단이 조화를 이루며 윤리적 실천의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원리이다. 「큰 道는 원용하여 有와 無가 둘이 아니요 理와 事が 둘이 아니며, 生과 死가 둘이 아니요, 動과 靜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대종경」 성리품 4장)라고 하여 圓佛敎가 실현하고자 하는

낙원세계의 가족구성원들은 정신과 육신이 건강하고, 修養 研究 取捨의 三大力이 갖춰져 육신생활을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정신생활을 위해서는 수도와 생활을 일치시켜 모든 것이 둘 아닌 원리를 깨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圓佛敎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佛菩薩(圓滿人)이다. 「圓滿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건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執着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道를 이루지 못하나니, 선비는 儒家의 습관에, 僧侶는 佛家의 습관에,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나니라.」(「대종경」 수행품 27장)하여 佛菩薩(圓滿人)이란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지 아니하고 널리 事理를 통달하여 다른 사람의 지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은 動靜이 골라 맞아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고 수양 연구 취사의 三大力을 갖춰 靈肉雙全 理事並行 할 수 있어서 세상의 차별 속에서 上下左右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돌려 놓을 수 있는 人間像이다.(유병덕, 1989)

가정은 佛菩薩(圓滿人)을 형성해 가는 장소이고 개인의 원만성은 가족관계 속에서 최초로 발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만한 인격을 갖춘 개인을 길러낼 수 있는 원리가 一致調和의 원리로서 家族共同體意識을 회복할 수 있는 圓佛敎 가족윤리의 원리이다.

### (3) 自力奉公의 原理

圓佛敎 가족윤리의 원리는 위에서 언급한 報恩相生, 一致調和의 원리와 함께 自力奉公의 원리를 들 수 있다. 圓佛敎的 자력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말하며 어떤 가족

구성원이든 자력적 삶의 기초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정신·육신·물질의 자립이 서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참다운 自力만이 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길이며 자주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자력을 갖춘 후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正道를 넘어서 함부로 自行自止 하는데서 발생하므로 여력이 있거든 무자력하나 공도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제안하여 놓았다.

이러한 自力奉公의 原理는 구체적으로 『世典』 「가정편」의 夫婦의 道 父母의 道 子女의 道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夫婦 사이에 도는 和合 信義 勤實 公益이니 근실은 「自立하는 정신 아래…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 나갈 것」을 公益은 「부부가 합심하여…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慈善 事業이나 教化 教育 事業 등에 힘 미치는 대로 협력할 것」(『세전』 「부부의 도」)을 제시하였으며 勤實에는 自力과 平等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公益에는 奉公의 의미가 내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父母의 道에서도 「자녀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보호하는 데 힘을 다한 후 한 가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널리 公道에 공헌하도록 희사하여 인도 정의를 빠짐없이 밝으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할 것」(『세전』 「부모의 도」)이라 하여 父母의 道에서도 自力奉公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

子女의 道에서는 「무자력한 타인의 父母라도 내 父母와 같이 보호할 것을 큰 효」(『세전』 「자녀의 도」)라 하였는데 이 또한 自力奉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自力을 갖추므로서 무아봉공의 이타적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少太山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고 있다. 즉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다.」(『정전』 「사대강령」) 自力奉公의 원리는 현대 핵가족에 있어서 家族利己主義를 극복하고 자녀교육과 노인문제 등의 해결에 지표를 얻을 수 있는 원리를 함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家族倫理의 構造

鼎山은 「五倫은 동양 윤리 도덕의 표준으로서 가정 사회 국가의 모든 규범이 이에 근본 하여 세워져 있던 것이나, 근래에 와서는 이 법이 해이해지고 실천의 능력이 약화 되었으므로, 이를 시대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을 “父母와 자녀는 친함이 있으며, 위와 아래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화합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서가 있으며, 同胞와 同胞는 신의가 있으라”로 함이 그 법의 본의를 살려서 前聖의 뜻을 원만히 이룩하는 길인가 하노라.」(『법어』 경의편 62장)하여 五倫을 가족윤리의 표준으로 받아드리고 있으며 다만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현되어야 할 가족윤리의 표준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류를 표준하여 세워진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夫婦의 倫理

鼎山은 「家庭의 비릇은 부부라, 부부 사이에 먼저 道가 있어야 하나니, 옛 성인의 말씀에 “君子의 道가 夫婦로 비롯된다.”(『세전』 부부의 도)하여 가정의 질서는 부부가 어떻게 그 道를 바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夫婦의 道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부가 지켜야 할 윤리는 和合 信義 勤實 公益 등 네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 부부의 화합을 위해서는 「경애와 이해를 바탕으로 쉼의 권장과 허물을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

고 동지가 될 것이요」하여 상호 벗과 동지로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의미를 갖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둘째, 「부부의 信義이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 하는 등의 폐단을 없이하며 세상에 드러난 大惡이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한 가지로 할 것이요」하였다.

또한 「烈이라함은 무슨 일이나 그 志操를 잘 지키는 것은 다 烈에 속하나니,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志操를 중히 아는 것이 여자가 정조를 중히 아는 것과 같은 까닭이라, 여자의 신분으로 그 貞操를 중히 알지 않는 이가 다른 操行에 얼마나 성의를 내리요. 그러므로, 烈의 실행은 男女老少간에 여자의 정조로써 비롯하여 천만 경우에 각각 그 志操를 잃지 않는 것이니,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항시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의 신분을 잘 가져서, 정당한 일이면 죽기로써 실행하고 부당한 일이면 죽기로써 앓는 것이 다 이 烈의 활용 아님이 없는 지라」(「범어」 경의편 60장)하여 烈을 통한 부부간의 정조 지킴은 여자의 정조로써 비롯하나 남녀노소간 즉 부부가 똑같이 지켜야 할 신의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부부의 勤實에 대해서는 「서로 자립하는 정신 아래 부지런하고 실답게 생활하여 넉넉한 가정을 이룩하며 人倫에 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 나갈 것이요」하여 부부간에 자력 있는 개인으로서의 의미와 인류에 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부과하였다. 이는 과거 媿父母만을 섬기던 며느리의 입장에서 딸도 그 親父母와 媿父母를 동등하게 대접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서 딸 아들 구분 없는 남녀평등의 길을 열어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自立精神은 勤儉貯蓄과 以小成大的 창립정신의 실천으로 경제적, 정신적, 육신적 자립을 갖추어

나태하거나 낭비와 허영으로 빚어지는 가정의 궁핍을 부부의 自立心으로 극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人倫에 대한 의무 이행에 있어서는 媿家 중심의 편벽된 의무이행 뿐 아니라 妻家와 그 외의 친족관계에서 平等하게 그 의무를 다해 가는 부부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公益精神은 「夫婦가 合心하여 國家나 社會에 대한 義務와 責任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慈善事業이나 敎化 敎育 事業 등에 힘 미치는 대로 협력할 것」을 「夫婦의 倫理」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점은 부부의 역할 확대를 말해주는 특징적인 덕목으로서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 가되 가정내의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그 책임을 사회와의 관계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報恩 行爲가 가족윤리에서부터 사회윤리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평화 안락한 낙원세계, 평등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圓佛敎의 이념이며, 낙원세계 건설의 기본 바탕이 가정이며, 부부는 낙원가정건설의 중심체계라고 보았다.

## (2) 父母 子女의 倫理

父母자녀 간의 윤리는 父母-子女관계에서 父母는 父母의 道, 자녀는 子女의 道로써 그 倫理秩序를 지켜나가도록 밝혀 놓았다. 또한 他子女敎育이나 恩父母子女 관계의 恩法結緣으로 더 넓은 父母-子女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夫婦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더욱 완전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때 부터 父母와 子女라고 하는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는 생존의 원리로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관계가 지속되는 한 모두 公正하게 살리기 위해 규칙이 필요하며 이것이 윤리, 도덕이다. 이에 父母, 자녀간의 倫理를 鼎山은 父母가 자녀에게 지켜야 할 윤리와 자녀가 父母에게

지켜야 할 윤리를 제시하여 원활한 父母 子女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父母의 道에서 「사람의 父母된 이는 父母로서 지킬 바 道가 있나니, 첫째는 어느 방면으로든지 자녀가 自力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요, 둘째는 어느 방면으로든지 시기를 잃지 말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힘을 다할 것이요, 셋째는 자녀로 하여금 한 가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널리 公道에 공헌하도록 회사하여 人道正義를 자녀의 孝와 不孝를 계교하지 말고 오직 의무로써 정성과 사랑을 다할 것이니라」(「세전」 부모의 도)라고 하여 자녀는 부모가 진리로부터 위탁받은 불보살이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로 하여금 널리 공도에 헌신하도록 하며 인류사회에 널리 報恩奉公하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였다. 父母는 자녀의 孝와 不孝를 계교하지 말고 오직 의무로써 정성과 사랑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父母에 대한 子女의 道에서 「子女는 子女로서 지킬 바 道가 있나니 『正典』에 밝혀주신 ‘父母報恩의 條目’을 일일이 실행하여 참다운 큰 孝가 되게 할 것이니라」(「세전」 자녀의 도)고 밝히고 있다. 鼎山은 「…孝의 의의는 실로 廣大하고 圓滿하여 天下古今에 길이 세상의 綱領이 되고 人道の 비릇이 되나니… 孝라함은 무슨 일이나 報恩의 道를 行하는 것은 다 孝에 속하나니 모든 報恩 가운데 父母報恩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父母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天地 同胞 法律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孝의 실행은 父母恩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데 있나니 사람이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千萬계를 감사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孝의 활용이라」(「범어」 경의편 59장)하여 모든 報恩행위를 ‘효’의 시작으로 보되 과거처럼 父母

보은을 위해 세상일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그 일에 감사하는 것이 참다운 孝의 實行이라 밝히고 있다.

少太山이 제시한 父母보은 조항은 첫째 工夫의 要道 3學(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 8條(信, 忿, 疑, 誠, 不信, 貪慾, 懶, 愚)와 人生의 要道 4恩(天地恩, 父母恩, 同胞恩, 法律恩) 4要(自力養成, 智者本位, 他子女教育, 公道者崇拜)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둘째 父母가 無自力할 경우에는 힘미치는대로 心志의 安樂과 육체의 奉養을 드릴 것이요, 셋째 父母가 生存하시거나 涅槃하신 후나 힘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父母라도 내父母 같이 보호할 것이요, 네째 父母가 涅槃하신 후에는 歷史와 影像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정전」 부모보은) 등이다.

父母보은의 조목에 ‘工夫의 要道와 人生의 要道를 밟는 것이 父母報恩이 되는 까닭에 대하여 少太山은 「工夫의 要道를 지내고 나면 부처님의 知見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要道를 밟고 나면 부처님의 實行을 얻을지니, 자녀된 자로서 부처님의 知行을 얻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그 꽃다운 이름이 너른 세상에 드러나서 자연 父母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리 된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父母의 壽命이 千秋에 길이 전하여 萬人의 존모할 바 될 것이니, …이는 실로 無量한 報恩이 되나니라」(「대종경」 변의품 25장) 하였다.

또한 자력 없는 타인의 父母라도 내 父母처럼 보호하는 것이 어찌 父母 보은이 되는가에 대하여 「過去 부처님이 말씀하신 多生の 이치로써 미루어 보면 과거 미래 수천만 劫을 통하여 정하였던 父母와 정할 父母가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많은 父母의 은혜를 어찌 現生 父母 한 두분에게만 報恩함으로써 다하였다 하리요. 그러므로, 現生 父母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이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 父母의 保護法을 쓰면 이는 三世 一切 父母의 큰 보은이 되나니라.」(「대종경」 변의품 25장) 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경로사상의 실종과 심각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윤리의 지침이 될 수 있겠다.

### (3) 兄弟親族의 倫理

鼎山은 兄弟 親戚의 道에서 「형제는 한 父母의 기운을 받아 나서, 한기운으로 자라난 지라兄이 아우와 友愛하고 아우가 兄을 恭敬함은 天倫의 자연한 차서니, 형제는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하고 낮은 일에 같이 걱정할지언정 부당하게 利害를 다투거나 空名을 시기하지 말며, 형은 형의 도리만 다하고 아우의 恭敬을 계교하지 말아서 그 天倫의 情誼를 길이 지킬 것이요, 모든 친척은 一切 大衆을 두루 친애하는 가운데 한층 더 챙겨서 허물어거든 서로 깨우치고 어려운 일어거든 서로 구원하여 한가지 福樂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세전」 친척의 도) 라 하였다. 위에서 서로 각자의 도리만을 강조하고 계교하지 말도록 하였음은 현대 가정에서 형제우애의 道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생각된다.

少太山은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 장자나 차자나 여식을 막론하고 두루 분배해 주기를 권했다. (「정전」 사요, 자력양성) 또한 鼎山은 자손들이 필요 이상의 의뢰심을 갖지 않게 하며 재산의 상속은 기본적인 생활자본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바로 공익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권장하고 있다. (「법어」 국운편 13장)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친척은 一切 大衆을 두루 친애하는 가운데 한층 더 챙겨서 허물어거든 서로 깨우치고 어려운 일어거든 서로 구원하도록」(「세전」 형제친척의 도) 가르치고 있다. 兄弟 親戚의 옳지 못한 의뢰와 부당한 의뢰에 대해서는 兄弟 親戚의 道가 아니라고 경계하고 있다.

즉 自力을 길러 친척들이 자립해 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依賴나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도와주며 위하는 입장에서만 영원한 和睦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 3. 圓佛敎의 兒童敎育

#### 1) 兒童敎育의 目標

圓佛敎 아동敎育의 이념은 圓佛敎의 사상적 공간이 되는 一圓相진리에 바탕해 있고 그러한 敎育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敎育내용은 圓佛敎 교리 전반에 나타나 있다.

少太山은 아동을 칭하여 「하늘 사람」이라고 했다. 「하늘 사람」이라 함은 邪心과 雜念이 없는 순수한 마음 즉 天真爛漫하여 無限한 可能性을 지닌 존재이다. 그릇에 담이지는 물의 모양처럼 아동의 천진무구한 무한가능태는 지도하는 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아동의 敎育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大山은 「어린이 敎育에 대하여」라는 법설에서 「어린이들은 天真佛이다. 어린이 敎育은 어느 敎育보다 중요하고 또한 그 사명이 막중한 것이니 聖스럽고 아름답고 깨끗한 敎育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 敎育자들은 聖父 聖母가 되어 정성을 다 바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대로 天真佛이 될 수 있도록 하라」(대산종법사, 1975년 신년법문)고 강조하였다.

천진불인 어린이를 敎育하는 目標을 天心·佛心·聖心の 양성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가르쳐 착하고 티없는 마음을 지닌 어린이, 자비로써 불심을 기르는 슬기로운 어린이, 인내로써 성심을 간직하고 감사생활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敎育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천심을 기르고 불심을 밝히고, 성심을 찾아주는 것이 圓佛敎 아동敎育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 교육의 이념적 근원은 一圓相의 진리이다. 즉, 天心을 길러주자 함은 「一圓은 宇宙萬有의 本源이니」 그 근본 되는 등근 마음을 아동의 마음에 길러 하늘과 같이 가식과 조작이 없는 천진심으로 사심 없는 진실생활을 하도록 교육시켜 나가자 함이다. 또한, 佛心을 밝혀주자 함은 일원은 「諸佛諸聖의 心印이니」 미움과 해심이 없는 부처님의 자비를 가르쳐 자비의 등불을 밝혀 덕으로 사랑으로 베푸는 자비생활을 하도록 함이다. 그리고, 성심을 찾아주자 함은 一圓相진리의 본질이 모든 성현의 마음자리니 성현의 삼독오욕을 참고 이겨내는 인욕을 가르쳐서 참고 견디는 인내생활을 가르쳐 나가자는 것이다.

요컨대 圓佛敎 兒童敎育의 이념은 일원의 등근 진리가 아동의 純粹 自我가 되도록 내면화하는 뜻이며, 그러한 순수자아를 내면화시킨 모습이 바로 하늘 사람의 모습인 바 圓佛敎 아동敎育은 「하늘 사람」의 성품을 보존하고 양성하고 사용(술성)하여 聖스러운 인간성을 형성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兒童敎育의 內容

圓佛敎 아동敎育의 내용은 아동기의 심리와 발달특성에 맞추어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즉 태중기 교육, 유아기 교육, 아동기 교육, 청소년기 교육 외에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태중기에는 주로 기질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태모가 함부로 하여 태교를 잘못하고 보면 영식의 좋고 낮음을 막론하고 그 기질이 또한 낮아질 수 있나니…」(「세전」 태교의 도)하여 태중의 기질교육과 이를 위한 태모의 근신을 밝히고 있으며 그 내용은 먼저 몸을 삼가는 법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법, 행실을 바르게 하는 법 등이다.

유아기에는 주로 「사람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여 선과 악이 없건마는 보고 듣는 대로 화하는 지

라…」(「세전」 유교의 도)라 하여 성품교육을 중요시 하였다.

아동기는 대준비기이며 대학업기라고 보았다. (「대산종법사법문집」 인생오기) 아동기는 잠재기이며 근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받아지는 교육의 내용에 따라 일생동안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圓佛敎에서는 「胎敎가 올바르게 어린 때의 교육이 땃땃하였다 할지라도 청소년 시절에 시대에 알맞은 과학 교육을 받지 못한다든지 일생을 통하여 근본적인 인격을 기르는 道學의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을 값없이 보내기 쉬우므로, 청소년 때부터 장년까지 시대의 학업과 도덕의 훈련을 아울러 받아야 한다. …과학교육은 물질 문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외부 발전을 맡았고 도학교육은 정신 문명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내부 발전을 맡았나니, 이 두 교육을 아울러 나아가되 도학으로써 바탕 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써 사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 하리라」(「세전」 교육에 대하여) 라 하여 과학교육과 도학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기에 그 기틀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과 도학교육의 병행은 정신과 물질, 내외의 문명이 겸전하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科學은 잘 부려씀으로써 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물질의 세계이고, 道學이라 함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를 잘 부려줄 수 있는 정신의 세력을 기르는 교육, 즉 도덕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圓佛敎의 아동敎育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圓佛敎의 개교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靈肉을 雙全하는 교육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생을 통한 평생교육으로는 학술교육, 정신교육, 예의교육, 근로교육 등이 있다. 그것을 크게 四願사상에 의한 교육으로 대별하여 大山은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天

地에게서 입은 은혜(天地피은의 강령)를 알아 天地의 도를 體받아서 天地같이 원만 평등한 천진심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父母의 육신을 낳아 양육시켜 준 은혜와 人道大義를 가르쳐 준 은혜를 알고 父母의 도를 체받아서 대자대비하신 큰 父母가 되도록 하자는 것, 또한 同胞의 사농공상들이 서로서로 이로운 관계가 되는 은혜와 일체 만유同胞가 상의상자한 은혜를 입었으므로 同胞의 도를 체받아서 相扶相助하는 윤리적 삶을 살아가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法律의 인도정의의 공정한 규율과 도덕 입법 처벌 등 사회관계에서의 은혜를 알고 지공무사한 천진성을 유지하여 法主가 되도록 교육하자는 것이다. (「정전대의」)

특히 강조한 점은 「산 경전을 끊임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대종경」 수행품 23장) 하여 인간 삶의 현실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삶의 실제속에서 끊임없이 올바른 삶의 교훈을 터득하도록 교육하게 한 점이다.

圓佛敎 아동교육은 위에서 논한 圓佛敎의 인성의 본래 모습인 一圓相진리를 체득하여 圓滿人이 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 아동교육의 내용도 인성의 본질을 체현하는데 있었다. 그러한 교육의 내용은 圓佛敎 敎書 전반에 내재해 있으나 특히 『어린이 교전공부』 『어린이 경강. 설교집』 『천심회교재』 『父母敎育 강의록』 등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교재를 중심으로한 아동교육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첫째 心性敎育, 둘째 道義敎育, 셋째 生活敎育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心性敎育

圓佛敎 아동의 心性敎育은 아동의 순수 자아가 마모되지 않고 내적 성장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즉 도덕성이 發芽하는 인생 초기

에 처한 아동에게 내재된 佛性을 찾아 잘 보존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어린이 교전』에서는 그러한 아동의 마음은 一圓相 진리 부처님이라고 표현하고 “진리부처님 一圓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어머니시요,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시요, 우리 모두의 착한 마음입니다”(원불교교화부, 1976)라 했고 “어린이들이야 말로 天真부처님이요 저의 스승”(양해관, 1987)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圓佛敎의 處處佛像의 意味가 담겨 있는 것이다.

즉 一圓相은 眞理佛이며, 자비와 은혜와 광명이 충만한 진리 그 자체이니 결국 아동에게 본래 주어진 본질성은 聖人의 마음이며 우주의 본질인데 그것을 一圓相진리로 상징화 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圓佛敎正典의 내용을 아동들에게 쉽게 제시해 준 것으로서 윤리의 본질을 깨우쳐 개인의 道德性을 완성시켜주기 위한 내용이며 그러한 心性의 본질인 一圓相이 아동의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서 一圓相의 眞理에 습하는 공부를 지속하도록 한 것이다.

#### (2) 道義敎育

圓佛敎 아동교육의 또 하나의 영역은 위에서 형성된 아동의 심성이 먼저 가정 내의 人倫 및 道義에서부터 나타나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러한 道義敎育은 父母·同胞·法律·天地 라는 四恩과 아동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은혜는 「사이가꾸기」로 표현되며 그러한 사이를 가꾼다 하는 것은 은혜로움이 흐르는, 감사함이 흐르는 사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해관, 1991)

아동은 먼저 父母와의 人倫的 관계에 바탕한 도의를 배우고 그 다음 형제 친족 이웃·사회와 관계하면서 적용하는 질서를 익히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道義敎育은 父母恩의 체득에서 시

작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은에 보답하는 길은 첫째, 마음공부 잘하기 둘째,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받드는 일 셋째, 무자력한 사람을 내 부모처럼 돌보는 일 넷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영상을 모시고 끼치신 은혜를 길이 기념하는 일(원불교교회부, 1976)이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경강설교』에서는 父母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서 아동의 수준에 맞춰 설명하기를 첫째 내일을 잘하는 것, 둘째 진리공부를 잘하는 것, 셋째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어린이경강설교집, 1991)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父母님에 대한 보답의 결과는 인륜의 시작이라고 제시하고 세상이 나를 착하고 어여쁘다 하고, 후손들도 이것을 본받아 우리에게 효성 하게 되는 보상이 돌아온다는 因果的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父母에 대한 報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相生의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鼎山은 소중한 인연에는 血緣과 法緣 두가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는 바 형제간은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혈연은 육친의 가족이요 법연은 법의 가족이니, 혈연과 법연이 다 소중한나 영생을 놓고 볼 때에는 혈연 보다 법연이 더 소중하다」(『법어』 원리편 5장) 고 하였다. 이는 父母자녀, 부부간, 형제친족 등의 인연이 혈연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지만 한가지법을 믿고 따르는 법연으로 이어지면 영원히 상생상화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아동과 同胞와의 관계에 바탕한 道義教育을 들어 본다. 圓佛敎 『正典』 同胞은에서는 「사람도 없고 禽獸도 없고 草木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 수 없고 同胞의 도움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정전」 사은)고 제시하였다. 동포의 내용은 「첫째 선비나 스승님의 은혜 즉 우리를 바르게 깨우쳐주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둘째 농부의 은혜로써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을 만들

어 준다. 셋째 여러 가지 물건을 제작하여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넷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서로 교환시켜서 우리에게 편리를 도와주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다. 다섯째 禽獸草木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어린이경강설교집』, 1991) 등이다. 이것은 「正典」의 同胞은을 아동들에게 잘 설명해준 내용이며 이는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사회화과정에서부터 同胞들과 상생의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교육하는 내용이다.

또한 法律과의 관계에 바탕한 道義教育을 들 수 있다. 아동들은 그 사회와 국가와 세계나 우주 자체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질서는 아동의 內的 秩序와 外的 秩序의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正典」에서는 안녕질서를 위한 法律과 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안녕질서를 위한 法律이란 국가 사회의 法律을 말하며 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이란 聖者들의 출현과 더불어 종교와 도덕이 제시되어 아동들에게 正路를 밟게 하고 아동의 도덕성을 함양하게 하는 법칙을 말한다. 法律은을 갈아 가는 길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어린이경강설교집』, 1991)

天地와의 관계에 바탕한 道義教育은 우주가 스스로 움직여 가는 것은 天地님의 길이요, 그 길을 따라 움직이므로 나타나는 것은 은혜이라고 밝히고, 이어서 天地님의 길은 끝이 없이 밝은 것이며, 끝없이 정성한 것이며, 끝없이 바른 것이며, 진리에 맞는 것이며, 넓고 크고 한량없이 많은 것이며,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는 것이며, 자랑스런 일에도 뽐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큰길로 天地님이 움직일 때 이 세상 모든 것에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원불교교회부, 1987) 라고 하였다.

이를 외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공기, 땅, 해와 달, 바람과 구름과 비 이슬 등의 구체적인 사물들을 제시하여 그 은혜를 밝혀 주고 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할 때 天地와 합일된 인격, 진리와 합일된 인격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圓佛敎 아동의 道義敎育에 대하여 종합하면 친치·부모·동포·법률과의 관계에 바탕한 人倫敎育으로 全人의 인격을 형성시켜 가는 敎育이며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또는 일체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 모든 관계속에서 부처님을 대하듯 소중한 관계의식을 갖도록 敎育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四恩에 보은하여 능히 상생 상극할 수 있는 관계를 영원히 상생하는 관계로 지속 발전시키도록 敎育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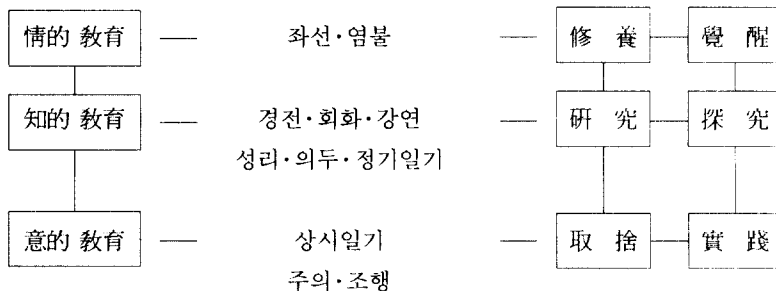
(3) 生活 敎育

圓佛敎의 아동敎育은 生活敎育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정생활로 부터 社會生活로 이어지며 그 생활은 自力生活과 佛法活用과 禮節生活를 포함하고 있다. 圓佛敎에서는 禮의 本質을 널리 공경함과 겸양함, 그리고 계교하지 아니함 등 세가지로 설정하고(「예전」 통례편) 다양한 生活敎育을 실시, 아동에서 부터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모두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기에 적합한 내용으로는 예절을 갖게 하는 근본 마음자세로서 염치와 신의, 의제의 예절, 식생활예절, 언어의 예절, 공중의 예절 등이다. 특히 염치와 신의를 갖는 예절에 있어서는 「사람이 세상에 살자면 반드시 예가 있어야 하나니 만일 이 禮를 알지 못하고 모든 動作을 매양 질차에 맞추지 아니하면 비록 자기 몸을 자기가 사용할지라도 상대방에서는 일을 시비하며 세상은 자연히 질서가 문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처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예는 가히 잠깐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廉恥는 양심상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淸廉을 지키는 것이고 信義는 신용과 대의를 잃지 않는 것이며, 廉恥와 信義는 곧 인간 禮義의 기본이 된다고 보았다.

三學의 倫理性에서 본 아동敎育을 살펴보면 精神修養을 통하여서는 마음의 안정과 정신의 자주력을 길러주자는 것이며, 事理研究를 통하여서는 사리간에 걸림 없는 지혜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며, 作業取捨를 통하여서는 윤리적 정의행을 실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二學정신을 통한 敎育내용은 정기훈련법 11과목(「정전」 정기훈련법)을 3범주화 했는데 이는 정의적, 지적, 행동적 측면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바 이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장하열, 1990)

<도표> 아동敎育 내용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정의적 교육은 정신수양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각성교육이다. 아동의 심리적 정서의 특성은 불안과 안정, 우월감과 열등감, 애정과 미움, 감사와 원망, 정의감과 분노, 믿음과 불신 등이다.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은 모든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학습부진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발달은 조화된 인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고 이는 三學의 精神修養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다. 그 내용은 念佛·坐禪 등이다.

둘째, 知的教育은 事理研究의 한 영역으로서 창의성 개발과 발견학습을 통한 探究性 교육이다. 창의성교육은 아동들의 자아적이고 독창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기존하는 여러 자료사이에서 새로운 결합과 또는 질서를 발견하는 능력, 어떤 목표를 향한 자기노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내와 용기 등을 함양 하는 교육이다. 탐구교육은 사물의 이치와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우주의 본질적인 원리까지 이해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이를 위한 과목으로는 講演·會話·經典·疑頭·性理·定期日記 등이 있다.

셋째, 의지적 교육은 바로 실천을 의미하며 이는 작업취사의 측면이다. 즉 정서적 교육으로 정신적 자주성을 갖고 사리에 알맞게 판단하여 그 대로 취사하는 실천의 교육이다. 의지적 교육의 내용으로는 常時日記·注意·操行 등의 과목이 있다. 이 三學並進의 교육내용은 아동교육의 내용이면서 방법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 3) 兒童教育의 方法

圓佛敎 아동교육의 방법은 心敎 行敎 言敎 嚴敎의 四敎를 그 대표로 들 수 있다. 「대종경」 인도품 45장) 첫째 心敎란 마음에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금 먼저 그 마음을 體받게하는 것이요. 둘째 行敎란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體받게 하는 것이요. 셋째 言敎란 매양 불보살 성현들과 위인달사들의 嘉言 善行을 많이 일러주어 그것을 기억하여 체받게하며 모든 사리를 순순히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이요. 네째 嚴敎란 이는 철이 없을 때에 부득이 위엄으로 가르치는 법으로 자주 쓸 법은 아니라고 하였다.

위의 四敎法에서 권장하는 교육방법의 특징은 體 받게하는 법이다. 이는 교육하는 父母가 먼저 心行處를 바르게 갖고 바른 모범으로 子女를 指導할 것을 권장하는 말이다. 「父母 子女와 같이 무간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勸勉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니,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대종경」 인도품 22장)하여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먼저 率性으로 실행하도록 하였다. 少太山은 좀더 구체적으로 아동을 가르치는 방법을 다음의 아홉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대종경」 인도품 46장)

첫째, 자녀를 가르치는 데에는 父母 자신이 먼저 上奉下率의 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니, 만일 자녀의 보는 바에 자신이 직접 不孝를 한다든지 不敬을 한다든지 기타 무슨 일이나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녀를 지도할 위신이 없게 되는 것이요,

둘째, 言動이 근엄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父母를 무난하게 하는 때에는 그 자녀를 정당한 規律로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셋째, 親愛를 주어야 할 것이니 만일 근엄하기만 하고 친애하는 정이 건네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진정으로 감화하지 못하는 것이요.

넷째, 모든 言約에 신용을 잃지말아야 할 것이니 만일 신용을 잃고 보면 그 자녀에게 철저한 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요.

다섯째, 賞罰을 분명히 할 것이니 만일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 참다운 覺醒을 주지 못하는 것이요.

여섯째, 어릴 때 부터 正當한 신앙심을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니 만일 신앙심이 없으면 자라는 도중에 다른 外경의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요.

일곱째, 어릴 때 부터 公益心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공익심의 권장이 없으면 자연히 이기주의의 싹이 커나는 것이요.

여덟째, 어릴 때 부터 남의 惡評이나 誹謗등을 금해야 할 것이니 만일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자연 경박한 습관이 커 나서 口禍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아홉째, 어릴 때 부터 예 아닌 물건은 비록 적은 것이라도 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만일 예 아닌 물건을 취하여 오게 하면 자연 廉恥 없는 습관이 커나게 되나니라.

또한 四敎는 인간형성을 위한 방법적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父母나 아동敎育자의 인격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心力·實踐力·法道 있는 언행을 구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인격적 덕목으로 본 것이다.

아동을 敎育하는 부모나 敎사가 갖추어야 할 圓佛敎의 아동敎育은 어린이가 갖고 있는 불성을 간직하도록 하며 佛性을 기르고 생활 속에서 적절히 사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어린이를 敎育하는 사람은 率性으로 모범을 보이고 친애로써 심리적 거리를 좁히며 자신이 먼저 인격을 갖추어 正當한 신앙심을 갖고 공익심을 권장하여 가정과 사회에 유용한 인간을 길러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성敎育과 더불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다.

아동敎育은 人心 佛心 聖心을 보존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가 어린이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발달단계마다 적절한 인성敎育과 기능敎育을 아울러 시행하여 원만한 청소년 및 성인기를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될 때 아동의 참다운 인간력이 성숙되고 더불어 가정 내에서 가족간의 윤리적 삶이 사회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圓佛敎의 인간의 완성은 三大力을 갖춘 圓滿人(佛菩薩)이며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하여 知情意 三學의 竝進法은 三大力을 갖출 수 있는 빠른 길인바 이는 圓佛敎의 중요한 敎育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圓佛敎의 아동敎育방법을 집약해보면 心理交感의 方法, 率性의 方法, 上奉下率의 方法, 靈肉雙全 理事竝行 과학과 도학의 병행 등의 竝進法, 常時 定期의 반복적 訓練法, 통교의 도에서 볼 수 있는 半生敎育의 方法이다. 日日時時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였으므로 自律의 原理를 적용시킨 自律의 方法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다.

### Ⅲ.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원불교의 가족윤리와 아동敎育을 일반화시켰을 때 현대가정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이점을 조망하여 결론을 내려보았다.

自力養成과 人道實踐과 특히 公益을 강조하는 원불교 가정관은 현대가정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논구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겠다.

보은상생·일치조화·자력몽공의 원불교 가족윤리의 원리는 첫째, 가족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둘째,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함장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원불교 가족윤리의 구체적 접근에서 부부간에 정신·육신·물질의 3방면에 자립적인 삶은 평등

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를 다하도록 하며 특히 부모는 자녀를 의무와 책임으로 돌보며 효와 불효를 계교하지 않고 오직 공익에 헌신하도록 권장하는 부모-자녀 윤리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데, 형제 친척의 옳지 못한 의뢰와 부당한 의뢰에 대해서 경계하고 다만 일체 대중을 두루 친애하는 가운데 허물은 서로 깨우치고 어려운 일은 서로 구원하도록 제시한 형제·친척의 윤리는 원만한 형제친척관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원불교 아동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적 원리 등을 통하여서는 첫째, 도덕적 개인의 완성으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할 수 있겠다. 둘째, 현대사회에 적합한 자리아타적 행동원리를 습득할 수 있으며 셋째, 인간성이나 인간의 능력이 편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원만한 인간력을 형성할 수 있으며 넷째, 상봉학교의 위계질서의 확립으로 질서있는 생활을 체득 할 수 있으며 다섯째, 반복적 훈련을 통하여 실천적인 자기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金聖觀(1986). 「心性說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金聖觀(1982). 「원불교 인간관」 『圓佛敎思想試論』 1집, 원불교출판사
- 金順任(1980-1981). 「원불교의 인간관연구」 『圓佛敎思想』 제4집, 제5집, 원불교출판사
- 金洛必(1989). 「원불교의 인간관」 『圓佛敎敎理研究會 新書 3』 명진문화.
- 金東善의(1985). 「청소년을위한성극연습」 원광사.
- 김유선의(1987). 『대종경이야기』 원불교출판사.
- 朴達識의(1982). 『하늘나라 하늘사람』 원불교출판사.
- 朴圓玄의. 『아홉선생의 이야기』 원광사, (1979).
- 徐慶田(1981). 「圓佛敎의 人間觀」 『圓佛敎의 眞理와 人間回復』 원광대출판국.
- 孫仁銖(1977). 『한국인의 인간관』 삼화서적
- 孫仁銖(1992). 『한국인의 가정교육』 문음사.
- 宋天恩(1977). 「圓佛敎思想에 나타난 人本思想」, (『원불교사상 2집』),
- 宋天恩(1979). 『종교와 원불교』, 원광대학교 출판국.
- 沈道正(1986). 「가정의 의미」 『원광』 141호, 원광사.
- 梁海寬(1987). 『부모교육강의록』 「눈이 큰아이 귀가 큰 어른」, 원불교출판사.
- 柳炳德(1989). 『한국사상과 원불교』, 교문사.
- 柳炳德(1974). 「일원상의 진리 연구」, pp. 110-111 참조.
- 柳炳德(1982). 『탈 종교시대의 종교』 원광대학교 출판국.
- 李聖恩(1982). 「원불교의 가정관」 『원불교사상시론 1』, 원불교출판사.
- 張夏烈(1990). 『청소년 교화의 이론과 실제』 원광사.
- 張眞鎬(1980). 『현대사회와 인간교육』 배영사.
- 趙正勤(1982). 「가정과 신앙」 『원광』 111호, 원광사.
- 朱貞一(1987). 「원불교와 아동교육」 『기념문총』 원불교출판사.
- 朱貞一(1993). 「원불교의 아동관」, 『원불교 사상시론』 II 집, 원광사.
- 韓基斗(1978). 「원불교 가정관」 『원광』 96호, 원광사.
- 韓鍾萬(1989). 『불교와 유교의 현실관』 원불교



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93).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76). 『원불교 어린이 교전공부』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91). 『어린이경강설교집』 「새세상의 좋은 일꾼」,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86). 『예절 범절은 이렇게』 가정교회입문서 2,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76). 『어린이 교전공부』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78). 『그림대종사』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81). 『어린이정전』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89). 『일원가정으로가는길』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89). 『예의범절은 이렇게』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91). 『그림鼎山宋奎宗師』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91). 『새세상의 좋은 일꾼』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91). 『少太山 朴重彬』 원불교출판사.

원불교교회부(1993). 『만화로 본 대종경』 원불교출판사.